

# 2022년 대덕특구 혁신기술 네트워크 사업설명회

2022.06.24





## 혁신기술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 : 2022년 6월 24일(금) 10시30분~11시 30분

### 2022년 대덕특구육성사업 설명 순서

10:30~10:35	인사말	대덕특구 혁신기업지원실 김인영 실장, 윤상민 연구원
10:35~10:50	사업 소개	혁신기업지원실 윤상민 연구원
10:50~11:30	사업 Q&A	참가자 모두



### 참고사항

- ✓ 본 사업설명회 발표자료는 특구재단 공식 홈페이지 “홍보자료” 게시판에 업로드 예정입니다.
- ✓ 해당 사업공고는 특구재단 사업관리시스템 ([pms.innopolis.or.kr](http://pms.innopolis.or.kr))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.

# 01 혁신기술 네트워크 운영 사업 **3.혁신기술 네트워크** 접수기간: 2022년 6월 3일(금) ~ 2022년 7월 7일(목) 15시

**사업 목적**

대덕특구 혁신기술 분야별 **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**을 통해 **융합아이템 발굴, 기술정보교류, 사업화** 등 지원

**지원 규모**

연간 최대 **260** 백만원  
※ 1개 수행기관 선정

**지원 기간**

협약 체결일로부터 **최대 11개월** 이내

**신청 자격**

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**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**이 있는 기관(기업포함)

**추진 절차**

**추진 절차**

공고

사전검토 (7월중)

선정평가(7월중)

신규과제 확정

협약 및 과제수행 (8월)

**사업 내용**

**혁신기술 네트워크 운영** 기술분과 및 정책, 사업화 분과 등으로 구분하여 공공-민간 주요채널을 중심으로 연구회 운영

- ✓ **핵심 기술분과** 기술분야별 연구회, 워크샵 등의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기술분야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네트워크를 통해 성과 창출
- ✓ **추가 네트워크 기획** 기술사업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와 포맷의 네트워크를 기획 및 운영.
- ✓ 단, 기존 혁신기술 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/기업은 기존 네트워크를 연속성 있게 운영 할 수 있어야 함.

**연구개발특구 혁신 네트워크 구성체계**



## 02 사업 개요

### ● 혁신기술 네트워크 사업이란?

대덕특구 내에서 **기술사업화 주요 채널**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구성 운영  
특구재단과 협력을 통해 **특구재단-유관기관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 지원**



Q. 기술사업화 주요 채널?

A. 대기업 민간연구소, 융합연구단, 기업가네트워크 등 다양한 “혁신주체”

Q. 네트워크 기획? HOW?

- ①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채널 기획 ex) 탄소중립, AI, 반도체 관련 연구회 기획
- ② 기존 채널-본 사업과 연계 ex) AI, 반도체, BT분야 주요 사업단/기업/학회 연계

Q. 네트워크 목적 방향?

A. 기술사업화 실질성과 및 목적지향형 분과 운영

#### 기존

- 소통중심 네트워크
- 자생적 네트워크
- 오픈 네트워크



#### 개편방향

- (방향) 공공기술사업화 목적지향 네트워크 구성
- (구성) 민간채널 및 다양한 혁신채널 활용한 분과
- (목표) 연구회 운영 뿐만 아니라 실질적 R&D기획, 기술이전, 투자 등 실질성과 측정



## 03 설명회 주요 Q&A

### Q1. 혁신기술 네트워크 사업 성과물은 어떤형태로 도출되어야 하나요?

A. 제안하시는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성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민간채널을 활용하실 경우, R&D 사업기획을 목표로 잡으실 수도 있고, 공공채널의 경우 기술이전, 기술창업 혹은 투자연계 등 기술사업화 관련 성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.

### Q2. 기존 네트워크를 반드시 활용 해야 하나요?

A. 제안하시는 네트워크 운영전략에 따라 기존 사업 채널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, 신규 네트워크 분과 구성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Q3. 네트워크 분과수의 범위가 있나요 ?

A. 정확한 수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, 과거 사업의 기준으로 4-5개 정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.

### Q4. 컨소시엄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?

A. 네.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범위 내에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합니다.